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 위한 청렴결의 다져

- 철도공단, 2012년도 임직원 청렴결의대회 개최 -

공단은 지난 2일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 확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단이 부패없는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김광재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이날 청렴결의를 통해 단호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피력하였고 이러한 청렴의지에 동참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은 청렴서약서 낭독하고 이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김광재 이사장은 사소한 부패행위에도



One-Strike Out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결과, 전년도에는 금품 및 향응수수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수년간 하위수준에 머물던 청렴도도 중위권으로 도약하였으며, 연초 윤리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부패는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있으면 견잡을 수 없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깨끗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과잉시설 개선 등 금융부채 6천억원 감소

- 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부채이자 순수 상환 -

공단은 2011년도 재무성과 분석 결과, 과잉시설 규모 조정, 시공방법 개선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채권발행 규모 축소, 고금리 채권 조기상환 등 각종 금융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금융누적부채를 계획보다 6천억원을 줄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의 누적 금융부채는 14.6조원에서 14조원으로 당초보다 감소했고, 하루 이자비용도 23.6억원에서 18.9억원으로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출액도 '10년 5,896억원에서 7,326억원으로 24.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도 전년도 1,228억원보다 958억원이 늘어난 2,186억원으로 78% 증가하여 당기 순손실을 39.7% 줄이는 한편, 공단 출범 이후 최초로 부채이자 415억원을 순수 상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건설부채로 인한 경영위기에선 벗어났고 재무구조 개선 토론회 및 수익창출 아이디어 공모,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등 6대 경영방침에 따른 전사적인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라고 자체 분석했다.

공단은 그간 투입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비 총 18.9조원 중 12.3조원을 차입하여 건설하였고 '04년부터 서울-동대구, '10년 11월부터 부산까지 개통하여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 징수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현재純선로사용료(선로사용료-유지보수비)가 부채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지급하지 못하여 일반기업이라면 파산위기에 처한 심각한 상태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체 조달 재원이 투입되는 호남고속철도사업 등에서 사업비 절감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단은 빛을 얻어 건설하는 고속철도 역사 등 과잉시설 개선 등의 전사적 예산절감과 국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 등의 자구노력으로부채증가를 억제하고 제2사업자 선정 및 선로사용료 증대 등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철도 배전선로에 알루미늄 케이블 적용

- 동(銅) 케이블과 성능 차이 없고, 값 저렴...236억원 예산절감 효과 -

공단은 철도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을 알루미늄 케이블로 대체하여 배전선로에 적용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알루미늄 케이블은 동(銅) 케이블에 비해 가격이 60%에 불과하며, 무게도 동(銅) 케이블의 70%에 불과하다. 또한, 철거품 매각금액이 동(銅) 케이블의 9.3% (동 4,000원/m, 알루미늄 375원/m)로 매각시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 최근 발생되고 있는 동(銅) 케이블 도난 사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銅) 케이블은 구리 가격이 2003년(1,800달러/톤) 대비 약 5배로 폭등(8,810달러/톤)하여 케이블 단가

구분	동(銅) 케이블 22.9kv 60mm ²	알루미늄 케이블 22.9kv 95mm ²	비고
가격	13,800원/m	8,400원/m	40% 저렴/m
중량	1,680 [kg/km]	1,248 [kg/km]	26% 경량/m
비중	8.89	2.73	
도전율	5.8 x 10 ⁷ σ(Ω/m)	3.82 x 10 ⁷ σ(Ω/m)	전기가 통하는 성질
인장강도	22.7 ~ 24.1 kgf/mm ²	5.5 ~ 9.5 kgf/mm ²	최대 응력

KTX와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 시행

- 경부·호남 KTX 인천공항까지 직접연결 -

경부 및 호남고속철도를 인천공항까지 직접 연결하는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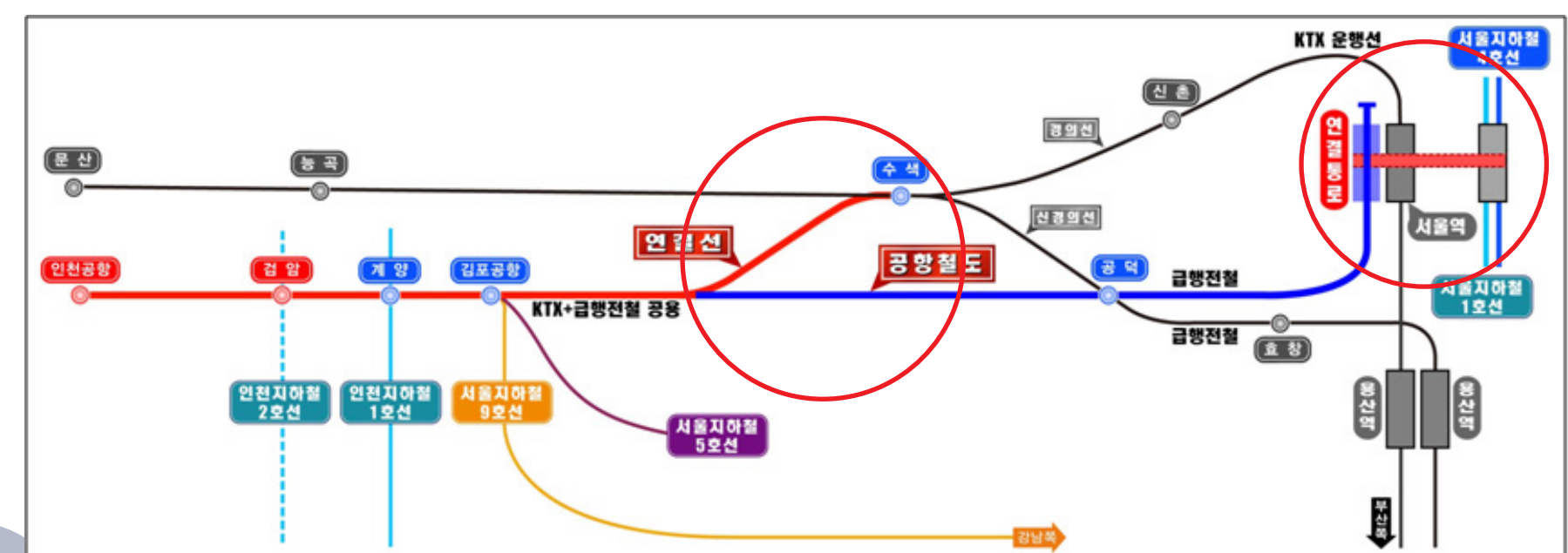
공단에 따르면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은 경의선 수색역에서 공항철도 노선과 경의선을 연결(연장 2.2km)하는 공사로 총 4,55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경부·호남선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갈아타는 불편 없이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으며,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55분, 광주에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9분('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시 기준)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지방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과 원주~강릉 복선전

철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에서 평창 및 강릉까지도 열차 직결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철도교통망도 확충된다.

한편, 공항철도 서울역에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을 지하로 직접 연결하는 환승통로를 만들어 공항철도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줄이게 되어(1호선 500m~365m, 135m단축, 4호선 695m~255m, 440m단축) 승객들의 환승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정 광역민자철도차장은 "공사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사 관리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하고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5개 공구 노반공사 발주

- 6~10공구, 총 공사비 1조 329억 원 -

공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건설사업 중 우선 착공하는 5개 공구(6~10공구) 노반공사(총 공사비 1조 329억 원)를 지난 2일 입찰 공고하였다.

공단은 원주~강릉 복선전철사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 입찰자에 대한 가점제, 1개사에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사 1공구 낙찰제도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7년 완공될 원주~강릉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수도권과 강원권을 고속의 철도망으로 연결하여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완벽한 수송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며, 중앙선과 연계한 수송시간 단축으로 낙후된 강원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직결화로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도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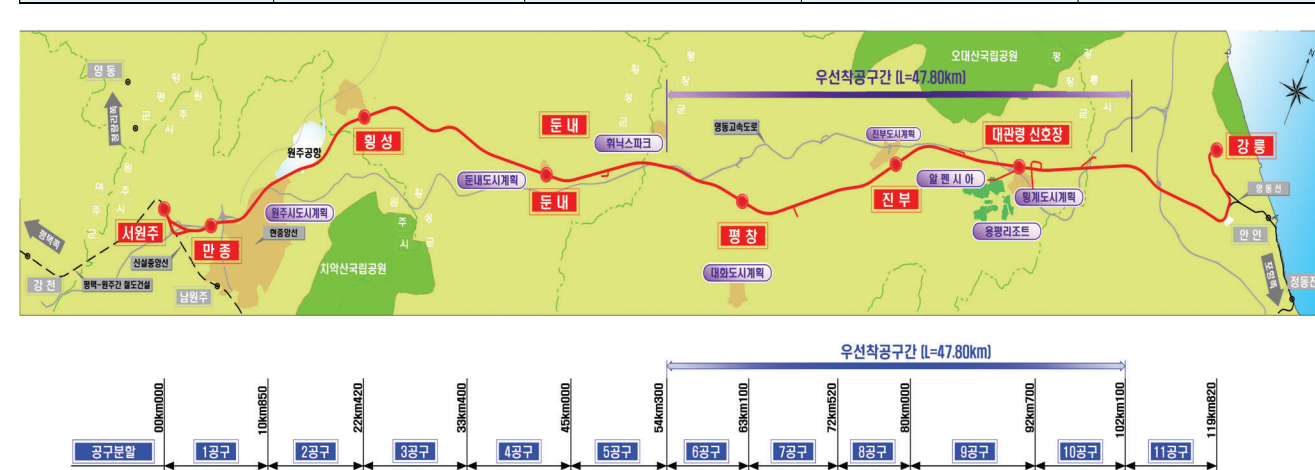
본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 수정입찰제 대상공사로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우선 착공하는 5개 공구 노반공사에 대하여 4월중 현장설명회를 거쳐 금년 6월초 계약체결 및 착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 공구는 금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이다.

우선착공구간 노반공사 현황

(금액단위 : 억원)

공구	연장	추정사업비	행정구역	비고
6공구	8.8km	1,989	평창군	평창정거장
7공구	9.42km	1,513	평창군	
8공구	7.48km	2,131	평창군	진부정거장
9공구	12.7km	2,738	평창군	대관령신호장
10공구	9.4km	1,958	평창군·강릉시	
계	47.8km	10,329		



창원시 석전동 철도 토공구간 교량화 본격 착공

- 동 주민생활 해소 등 지역균형발전 기대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경전선 복선전철 사업 중 마산역~중리역간 연장 6.194km 구간을 신설선으로 운행선을 변경하여 창원시 석전동 토공구간 교량화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석전동 삼각지 철도 토공구간은 도시양분 및 지역단절 등 주민생활불편으로 '2003년 공사착공시 부터 수십 차례 교량화 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민원해소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량화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총사업비를 승

인받아 30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게 되었다. 교량구조물 공사를 위해 임시 가설교량을 설치하여 지난 3월 16일 석전터널을 거쳐 중리역까지 신설선으로 운행선을 변경하여 열차운행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교량공사를 마무리 후 영업시운전을 거쳐 금년12월 마산역~진주역간을 개통하여 KTX열차를 투입할 예정이며, 교량하부는 창원시와 협의를 거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영남본부 정정찬 기자>